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원현 베드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김규철 레 오 952-836-7117
 연령회장: 최중구 안토니오 916-747-8431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코헬렛 1:2, 2:21-23

제2독서

콜로새서 3:1-5, 9-11

복음

루카 12:13-21

◎말씀

“하느님 앞에 부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모아 둘 데가 없을 만큼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기까지는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속 생각이 주님께 대한 감사함이 아니라, 공간을 가득 채울 생각에만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화를 쌓아 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기자!” 부유한 사람의 마음속 생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이 되겠느냐?” 이 사람에게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탐욕의 마음입니다. 그 탐욕에 따라 재화를 모을 뿐, 주님의 자리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주는 교훈은 주님과 관계에서 탐욕에 대한 경계입니다. 부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 부자는 재화의 축적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 방향도 자신에게만 향해 있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이니, 주님을 행한 마음은 없습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는 방법은 무엇일까?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베푼 자비와

사랑만큼 하늘나라의 공간에 자신의 보물이 쌓이게 됩니다. 부유한 사람은 땅에서 얻은 많은 소출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주님과 관계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탐욕에 빠져 자신만 생각하는 이 부유한 사람, 주님께서는 그날 밤 그의 생명을 되찾아갑니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서 거두어 갑니다.”

우리는 주님께 많은 것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화만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시간, 주님께서 주신 талант, 주님께 받은 사랑, 주님께 받은 자비... 나는 과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요? 자신의 탐욕에 이끌려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느님 앞에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주님께서 뜻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청해봅시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것은 빈 몸으로 왔다가 빈 몸으로 갑니다. 하지만 가져가는 것은 있습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행한 사랑과 자비입니다. 사랑과 자비는 주님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언어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이고 그분의 모습이고, 그분께서 행하신 삶입니다. 자비는 심판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탐욕을 따라 모은 재화가 아니라, 살아생전 행한 이 사랑과 자비가 곧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보물이 되겠습니다.

일 자	전례력	미사시간	우리들의 정성(지난주)	
8월2일(화)	연중 제18주간 화요일	저녁7시30분	주일헌금 교무금	\$ 867.00 \$ 4,030.00
8월3일(수)	연중 제18주간 수요일	오전7시30분	성물방 사회복지	\$ 29.00 \$ 271.00
8월4일(목)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 기념일	저녁7시30분	성소후원 결혼예물	\$ 99.00 \$ 500.00
8월5일(금)	연중 제18주간 금요일	저녁7시30분	교구2차헌금 (Africa 선교)	\$ 3,749.00
8월6일(토)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저녁7시30분	합계	\$ 9,545.00
8월7일(일)	연중 제19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학생: 3명 성인: 139명
교무금 봉헌자	이호영(7-12)최영진(1-24)김옥륜.최중구(7-9)김길록.류승교(7-8)이서향(6-8)조영주.김창현(7) 김영숙.윤영자(8월)			

◎신앙생활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21)

“식사 후 기도에 이런 뜻이!”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하는 기도가 있다면 식사 전, 후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다보면, 식사 전 기도는 잘 바치면서 식사 후 기도는 종종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사할 때는 누구나 음식 앞에서 허기를 느끼기 마련이고, 음식의 소중함과 감사함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즐겁게 음식을 먹은 다음 우리의 마음은 식사 전과 다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이렇게 쉽게 놓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식사 후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도에는 교회의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식사 후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아멘.

기도문을 보면, 음식을 맛나게 잘 먹었다는 등의 식사와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이 은혜에 대해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 모든 이를 기억하며 기도를 바칩니다.

옛날 어른들은,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 없는 연옥 영혼들이 밥상 밑에서 이 기도를 애타게 기다린다고 가르치시면서 식사 후 기도를 철저히 바치셨습니다. 연옥 영혼이란 가장 가난한 존재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오직 살아있는 이들의 기도와 희생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가장 가난한 이들입니다.

식사 후 기도는 우리가 한끼를 배부르게 먹을수 있었음에 감사하다는 의미보다는 배부르게 먹어 포만감이 차오른 순간에서도 하느님의 은혜와 가장 가난한 이들을 잊지 말라는 교회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사회 교리의 핵심을 담고 있는 이 기도 안에는 지금 나의 행복에 갇혀있지 말라는 뜻이 함께 포함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선택해 왔고 이로써 교회의 존재 이유를 시대에 드러내 왔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성소수자, 노숙인, 고아, 전쟁피해자, 난민, 미혼부모, 낙태아, 사형수, 중병의 환자등이 이 시대의 가난한 이들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이들에게 옳고 그름이나 죄가 있고 없음을 묻지 않습니다. 누구든 인간의 존엄함이 구겨질 만큼 고통 속에 놓여 있다면 이는 교회가 최우선적으로 품에 안아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의 관심과 선택은 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가난한 이들 옆에 서는 것이었고, 이들의 아픈 자리에 함께 서서 이들의 아픈 현실과 세상의 불의에 맞서는 것 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어떤 정치적 이념을 내세우거나 제도 등을 만들지 않으셨던 것처럼 교회는 ‘정의가 무엇인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프고 고통속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태오 복음은 25장 ‘최후의 심판’에서 교회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죄는 세상에 고통을 가한 책임에서가 아니고 고통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교회는 세상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들을 대신해서 기꺼이 목소리가 되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자리이며 역할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김정필 라파엘, 윤태옥 안나, 원정은 카타리나 백정심 막달레나, 기은희 마리아, 김나미 로사 김옥륜 세실리아, 엄안드레아, 김숙자 수산나 안옥자 엘리사벳, 이규청 제노비아, 엄모니카 박모란 글라라, 이상일 마리아, 배미성 오틸리아 남필레 마리아, 고공자 벨라데타, 김화진 요안나 신용경 그레고리오, 김초지 마리아
- ◎기도 부탁하실 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율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서정선 엘리사벳 영혼	안윤석	생	마이클 메이오 건강회복	최선옥 제노베파
연	클래런스 링고 영혼	최재진 모니카	생	남성 제15차 꾸르실료 본당 참가자들	본당 꾸르실리스파
연	제니퍼 영혼	김일주 안나	생	이하철 영육건강	김창현 세실리아
연	김숙연 타르실라 영혼	이베드로.벨라데타	생	(생일) 장호길 비안네 영육건강	이영숙 데레사
			생	성소후원회 회원들 영육건강	성소부
생	(생일) 장호길 비안네 영육건강	이영숙 데레사	생	(생일) 산하비 영육건강	김평옥 모니카
생	(생일) 김평옥 모니카 영육건강	김정애 헬레나	생	류재순 마리안나를 위해 기도해주신 아빌라데레사 회원들 영육건강	류재순 마리안나
생	이규청제노비아, 이후영베드로	구비아			

(광고)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요한 17:21

주보제작: 박봉준. 프란치스코살레시오(909-573-5322) E-Mail: bongjun5322@gmail.com

<p>Samurai Sushi</p> <p>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 95742 신영후 (토마스) 916-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p> <p>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 (바오로) 916-361-2020 (Bradshaw) 916-361-0433 (Elk Grove)</p>	<p>1.2.3 Auto Body 정비</p> <p>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 (호영베드로) 916-366-0123</p>	<p>전주곰탕 & BBQ</p> <p>9345 La Rivera Dr. Sacramento, CA 95826 (구 아시아마켓) 임복순 (골롬바) 916-382-9699</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p> <p>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O) 916-475-3770 (C)</p>	<p>에어컨 수리</p> <p>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p> <p>배용환 (올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p> <p>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 (스테파노) 김옥기 (클라라) 530-771-7715 530-204-8878</p>	<p>서은미 부동산</p> <p>ONE REALTY ONE GROUP COMPLETE</p> <p>950 Iron Point Rd., #170 Folsom, CA 95630 서은미 (안나) 916-600-1936</p>
<p>최병엽공인회계사</p> <p>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p> <p>9521 Folsom Blvd. suit P Sacramento, 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 (바오로) 916-363-2345</p>	<p>Hair Story Salon</p> <p>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p> <p>헤어디자이너 정린 (클라라) 916-342-7072</p>	<p>메리서 부동산·용자·재정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p>서주연 (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CALIFORNIA . GEORGIA . HAWAII</p>	
<p>Allsafe Lock & Key2</p> <p>9336 #B La Riviera Dr. Sacramento, CA 95826 Sam Song 279-786-6186 allsafelocknkey2@gmail.com www.allsafelockandkey.com</p>	<p>장의사 W.F.Gormley & Sons Funeral Home</p> <p>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p>양업토마스공동체 (리노공소) 후원</p> <p>교추장. 된장. 청국장가루. 참기름. 도토리 국수 판매 리노공소 기금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입니다. 공소부장 : 임정남 실비아(916-591-0179)</p>	
<p>Angel Garden Care Home</p> <p>9873 Traveler Court Elk Grove, CA 95624 조영숙 (도미니카) 530-886-9529 ycho11281128@gmail.com</p>	<p>약사에게 물어보세요</p> <p>Aeyon Lee RPh (이애연 플로렌시아)</p> <p>개인면담 (사전예약필요) 교중미사후 친교실 (격주) 916-276-1834 aeyon7511@gmail.com</p>	<p>교무금 봉헌 은행계좌 안내</p> <p>입금은행: Wells Fargo 은행주소: 9500 Micron Ave Suite 130 예금주: Pastor of St Jeong-Hae Elizabeth 계좌번호(Account#): 360 184 1897</p> <p>교무금 등 각종 봉헌은 주님께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모든 신자의 의무사항입니다.</p>	